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난날 하나님이 생명의 위험에서 지켜 주신 것을 보면, 신비하고 오묘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알고 사람을 쓰고 행하셨다. 그리고 행한 후에 모든 것을 보고 깨닫게 하셨다.
2.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은밀하게 행하신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탄하게 되는 사연을 평생 잊지 않고 말로 증거하게 된다.
3.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행하신 일은 그 일이 지난 후에 파악하고서 모두 알게 된다. 정말 깨달아 알면, 감탄이다. 탄복할 만큼 신비하고 오묘하게 행하셨다.
4. 죽음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산 자도 기쁨과 감탄과 고마움과 희열에 차고 넘치지만, 도와주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리 기뻐하고 감탄하신다. 하나님은 살림을 받은 자가 깨닫고 진실로 기뻐하고 사랑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다.
5. 하나님은 개인을 죽음에서 살려주듯이, 민족도 전쟁과 죽음에서 각종으로 역사하여 살려 주신다.
6.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때마다 돕고 구원해 주신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라.

7. 하나님은 사람마다 꼭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영이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가지 않게 이끌어 주신다.
8.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감동을 주며 살려주셨다고 하니, “그러하다. 지금도 그와 같이 너를 사랑하고 함께하며 그리 대해 준다.” 하셨다.
9.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살려 주신 것을 모르고 사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성령님은 “알고 깨닫고 사랑하며 대할 때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고 돕는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래도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돕기는 한다.” 하셨다.
10. 하나님은 육신도 죽음에서 살려 주셨지만, 신앙과 영을 죽음에서 살려 주셨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다.
11. 자기 육도 영도 살려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사랑 일체 되어 사는 삶이다. 매일 이를 깨닫고 살아야 기쁨이다.